

SERMON ADVENT 1 29 NOVEMBER 2015

저희 부부가 호주에 오기 전에 저는 바다의 이안류에 대해서 들어 본적이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한번도 이안류를 경험해 본적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저는 물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남편 클라이브는 우리가 호주에 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안류를 경험했습니다. 클라이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운이 좋게도 클라이브의 새로운 동료 중 한 분이 이안류 현상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클라이브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주생활이 끔찍한 시작이었을 뿐만 아니라 끝이 날뻔했습니다.

저는 해안가에 가는 것, 모래사장을 따라 걷는 것,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 햇빛과 공간을 즐기는 것을 사랑합니다. 저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가 모두 연결되어 있고 항상 어느 곳에든 해안을 부수고 있는 파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살아왔던 많은 장소들과 바다가 연결 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바다는 아름다운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또한 위협적이며 상어가 수면 아래에 숨어 있고 그들의 환경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웬지 이 모든

것이 이 시기에 저에게 비유같이 보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불빛들, 크리스마스 쉼리들, 기대감, 최소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들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의심의 이안류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깊은 곳에서 우리가 도망 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문제가 있는 곳으로 끄집어낼 위협을 합니다.

오늘 아침 성경 봉독을 들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림절 절기의 시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사랑, 희망, 기쁨 그리고 평화를 축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대신 우리는 몇 주전에 읽은 마가 복음 재난과 위협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말씀과 영상들을 함께 하는 것이 쉽습니다. 이 위협의 시기에 두려움을 느끼기는 쉽습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파라마타에서 이 성경 봉독을 그룹 토론 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실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두려움, 위협, 그리고 차별의 느낌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 이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기회와 환영의 나라라고 불리어 지는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수 없습니다. 탁자 주위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슬퍼 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는 아마 적잖은 사람들이 바라는: 백호주의정책으로 돌아 가는 것 을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편에서는 시드니의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전 지역에 분명한 다양성을 더 즐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종류의 문화로부터 온 음식을 즐깁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이름하는 양로원과 노인 복지 시설과 병원들에서 일하는 많은 다른 문화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그들과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의혹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우리는 태어날 아기가 어느 곳에도 머무를 곳이 없어서 낯선 나라, 피난처로 도망가야만 했던 중동의 한 노숙자 부부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장식용 반짝이 조각에 싸서 우리의 카드 주위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과 함께 둘러싸서 오늘날 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것의 의미와 연결성을 거부합니다.

이 시기에 이 대림절 절기는 특별하게 중요하게 저에게 보입니다. 이 세상을 상처 내고 세상사람들을 위협해온 어떤 종류의 문제들이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림절은 항상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위해, 다가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축복의 의미에 관해서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어둠을 살피고 어디에 빛이 비치는지 그리고 희망과 대림절의 다른 주제들인 기쁨, 평화,

사랑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식별하도록 우리자신을 준비합니다.

이 개념들은 지금 꽤 반문화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비록 그렇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마음 안의 깊은 열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기대감을 사랑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가 너무 이상화시킬 수도 있지만 “가정”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냅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시즌은 많은 외로움과 고립됨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는 많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 안에 항상 가정을 갈망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 또는 가정이 없는 아이들 까지도 그들 안에 가정이 어때야 하는지 압니다. 올해, 그리고 이 시즌에 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을까요? 궁극적으로 가정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성하신 공간 안 이라고 부르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단순히 기독교인들 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어떻게 가정과는 반대의 개념인 테러의 이미지들로 소용돌이 치는 감정들과 배경, 전경을 다룰 것입니까?

이것은 절망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을 붙인 작은 양초는 희망을 선언합니다. 작은 양초의 빈약함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와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것과 우리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을 살펴볼 시기이기 때문 입니다. 희망이 아주 먼 개념이거나 또는 이해하기는 너무 막연하다고 느끼는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리고 무엇을 믿을 지 선택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반 문화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선택들을 더 중요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를 위한 것 입니다. 그것은 또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무엇인지를 정의 합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여기에 함께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찮은 부부에게 하찮은 장소에서 하찮은 아기로서 우리가운데 오시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희망을 우리는 단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하찮은 사람들 이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찮다고 느끼는 것을 가지고 생명, 희망, 평화, 기쁨을 가져오는 것으로 변화시키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씀들이 중요합니다. 요즈음 우리 주위에

화를 담고, 두려움으로, 증오로, 또는 분명한 무지를 담은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말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운 수사적 비판, 의혹과 분열에 빠져있거나, 또는 우리가 사랑의 탄생을 가져오는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남겨놓아야 하는지 더 힘든 선택을 해야 하는 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하시도록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선택을 한 사람들로 부터 영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리 바타클란(Bataclan)극장에서 총에 맞은 아내의 젊은 남편이자 아버지의 말을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튜브 동영상에서 수 천 번 들려지고, SBS 저녁뉴스 마지막에 방영되었던 클립에서 이남성은 그 테러리스트에게 증오의 선물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가 어떻게 갈 것이고 그의 아들에게 이야기를 읽어 줄 것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테러리스트는 그들의 아들의 증오도 역시 선물로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우리 중에 몇 분이 그 젊은 남성처럼 반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 말은 간증이라는 사실 그것이 두려움과 증오가 아니라 생명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가 한말은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 본문을 봅시다. 예레미야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정의로운 자손, 예수님의 탄생을 예시 합니다. 그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한 번영과 안전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언제 어떻게 그것이 일어 날지 궁금해 할 것 입니다. 누가복음 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다른 이야기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자연적이고 인간이 만든 재난의 이미지와 함께 자라 나는 것을 기억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에 아주 많이 예언되었고 그들의 이야기의 부분입니다. 비록 그들이 심판의 날을 견뎌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언제 다시 메시아가 돌아오는 모든 것이 좋아지는 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들 모두는 이것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의 때 그리고 중재와 목적의 하나님의 이야기의 부분으로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당신은 첫 번째 없이는 두 번째가 오는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전에 언급 한 것 같이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임재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 중간시대(in the in between time)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성육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이 우리 신앙의 기초되는지 우리 앞에서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용서와 갱신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왕국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해와 초점은 더욱 선명해 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다시 시작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것이 분명 오늘 우리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수 십 년 그리고 수세기전에 권력자들에 의해서 잘못 안내 되어지고 결정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모습은 얼마나 다를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결과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 앉아 또는 무기력하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비록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 지 모르는 방식 그러나 우리가 차지하고 사는 세상의 작은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들,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할 것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선택을 이끄니까? 너무 많은 것을 말하고 하려고 하는 위험에서 그리고 아마 2015년 마지막 전에 제가 지난주에 시작한 것에 무언가 마무리를 하고 싶어하는 - 이 모든 것이 주기도문과 관련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시대의 어떤 도전들을 압니다. 주기도문은 이를 반영합니다. 그 당시 실제 굶주림과 빈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는 실제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듯이 그것이 실제 역할을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로 돌아가서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에서 고생할 때 하늘에서 온 만나를 먹으며 생활 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에서 그들을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줄 것이라고 말하며 들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바로 빵이었습니다. 그가 언제나 했던 것은 희망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죽음과, 분노와 두려움을 이겨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채무자의 빚을 면제해주듯이 우리의 빚을 면제해주시고, 가장 문자적인 번역이라면, 빛, 가난 그리고 불의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희망 없는 삶에 묶어 둔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빛과 채무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실패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악행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주기도문의 이 부분은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압제를 뒤집어 엮을 것이라는 찬양의 감정을 불러 일으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행동을 부르는 희망의 확신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마지막 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또는 “우리를 시련에서 구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은 다시 로마 통치시대의 세속적인 권력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듯이 상당한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오늘날과 같은 실제 또한 비유적으로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아마 이 말들은 예수님이 광야에 이끌려 가시고, 그의 힘을 정치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유혹을 받으셨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 이런 연결들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에서 등을 돌려 다른 결정을 하십니다. 그는 다른 길 즉 사랑의 관계를 보여줌으로 이런 것들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사람을 위한,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하듯, 그렇게 많은 고통,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담을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신앙, 생명, 그리고 희망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비밀스러운 곳에 자리잡을 수 있고 한 신앙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디 있건, 우리모두를 위한
희망, 평화 그리고 사랑을 두려움 없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정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